

AI 인프라 ‘빅뱅’ …광주시·전남도 ‘실리 챙기기’ 나섰다

광주, 선도 투자 효과 살리려면 SK-오픈 AI 데이터센터 공공성 확보를 전남, 국가 AI 컴퓨팅센터 이어 민간 데이터센터까지 유치 굳히기 돌입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국내 AI 인프라 대전환이 본격화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떤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26만장의 그래픽카드를 대한민국에 우선 제공하기로 한 이후 ‘AI 인프라 빅뱅’을 맞는 상황이라는 점에 서다.

◇광주 정부 ‘공약 지켜라’ = 국가 AI센터 유치를 희망했던 광주시는 정부에 ‘국가 AI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SK-오픈AI 데이터센터’ 유치 의향을 타진했음에도 광주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가 정부의 ‘SK-오픈 AI 데이터센터 광주 유치’ 제안을 일단 거절한 핵심 논리는 ‘그래픽카드(GPU) 자원을 지역과 공공에 개방하지 않는 데이터센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요·열배출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지만, 민간 전용으로 운영되면 고용·연구·창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파급효과가 작다. 광주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공공성’이다.

광주시는 이미 5년여에 걸쳐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AI집적단지 조성하고 국가 데이터센터 운영을 선도해왔다.

국내 최초로 AI 중심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산학연 고도화·창업기업 육성·GPU농장 시범사업까지 일관된 혁신정책을 진행 중이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배제된 민간 단독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산업 밸류체인 확대는 요원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광주시와 전문가들은 “공공 GPU 집적이 없는 SK 센터라면, 협오시설 논란만 불러오고 산업발전 실익은 거의 없다”며 “진정한 지역 성장과 혁신생태

계를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광주가 설정한 마지노선은 “공공부문에 즉시 활용 가능한 대규모 GPU 물량”이다. 규모의 예시는 최소 국가 AI컴퓨팅센터에서 공공자원으로 활용할 자원 수준의 2만장 수준으로 거론된다.

이 자원은 지역 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이 초거대 언어모델 학습과 산업 AI 실증에 쓸 수 있도록 트래픽·시간·데이터 보안 기준을 갖춘 별도 풀로 운영돼야 한다. 단순한 ‘협력 의지’가 아니라 계약서에 들어가는 ‘할당·기간·품질 보장’ 조항을 요구하는 이유다.

시는 AI 사관학교·지역대학 대학원 트랙·산학협력단·창업보육의 연산 수요를 통합 관리하고, 센터는 그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지역 인재가 현장에서 곧장 실험·검증·사업화를 이어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광주는 ‘국가센터와 민간센터의 역할 분담’을 전제하면서, 민간센터에도 공공 기여를 의무화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제도화해 주면, 광주와 해남이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묶일 수 있다는 판단에 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형식적 ‘위로 카드’가 아니라 제도와 예산이 담긴 ‘플러스알파’를 꺼내야 하고, 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여 모델로 답하길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AI인프라 구축 ‘굳히기’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조기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 2025’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0월 초 최태원 회장과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맺은 서남권(전남)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서울 코엑스 오픈미팅룸에서 SK그룹 최태원회장과 면담을 갖고 ‘오픈AI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해 SK 그룹 투자협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서(MOU)의 후속 조치다.

당시 SK그룹은 SK텔레콤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 센터를 공동 구축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데이터센터의 전남(해남) 행이 결정된 상태에서 보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위해 김 지사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최 회장에게 ‘SK-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전남도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외에도 재생에너지와 공업용수, 부지 등 전남도가 보유한 지리적 이점을 소개하며 반도체 팹리스 투자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김 지사에게 데이터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 발표 이후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목

표로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울권 지원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전남이 대한민국 AI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CC 10년, 5·18 토대 ‘대표 브랜드’ 개발해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사업의 핵심 시설로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부지에 세워져 장소적으로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 문화전당이 문화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품은 장소이기도 하다. 구상 단계부터 이러한 건립 취지와 장소성을 건축 설계에 반영했던 것이다.

‘빛의 숲’ (우규승 건축가)은 5·18민주화운동의 자취인 전남도청 본관의 외관을 그대로 두고 주요 건물을 과감히 지하 공간에 조성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건축물 외에도 창제작을 중시하고 문화예술이라는 개념 아래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경계 없이 다룰 수 있는 것은 공간이 주는 장점이 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코리아유니크베뉴, 한국관광100선, 야간 명소 등에 선정된 것은 한국만의 매력과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명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방문객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ACC의 활성화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운데 하나로 조성사업 종료 시한이 오는 2028년인 점을 감안하면 ACC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문화전당을 하나의 유기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냉정하게 보면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ACC는 완전한 개관을 했

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평화교류원인 옛 전남도청 복원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문화전당은 비로소 온전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옛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ACC는 창조원, 정보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평화민주교류원 등 완전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옛전남도청의 복원이 마무리되고 내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향후 운영 주체가 어떻게 귀결될지 조미의 관심사다. 현재로서 기관 선정, 운영 방식 등이 정해진 것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옛도청 복원공사 이달 내 마무리
운영주체·방식 문제 빠른 결론을

지난 6월 문제부 주최로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옛 전남 도청 명칭 및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오월 단체는 ACC에서 옛 전남도청을 분리해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부가 애초 ACC 설립 취지대로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이 갈렸다.

복원추진단 김인숙 팀장은 “지난번 토론 이후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사회적 합의 조율 과정 중에 있다”며 “당초 복원추진단은 연 말까지 존속하기로 돼 있지만 현재는 추진단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행안부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옛전남도청 복원 이후 내부 콘텐츠를 어떻게 채

우느냐의 문제도 중요 사안이다. 80년 5월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충실히 담아내는 것은 당초 ACC 건립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광주의 문화자산인 5월 정신을 토대로 한 ‘대표 브랜드’ 창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상 눈에 띄지 못한 대표적인 작품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와 평화, 인권 기반의 ‘킬러 콘텐츠’를 매개로 외국인들과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이 오월 정신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퀄리티 높은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역 문화계 인사는 “개관 초 ACC는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기관이라는 편견이 있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지역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을 먼저 배려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납입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땀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IGFA 보험GA협회